

2. 논술고사 문항카드 제출 양식 : 『문항카드』

2-1. 문항카드 ① <인문계열 1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지속 가능한 사회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2014년 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설정, 더욱 깨끗한 에너지 연구, 에코-스마트 도시 계획, 수소불화탄소 사용의 단계적 축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국제적 책임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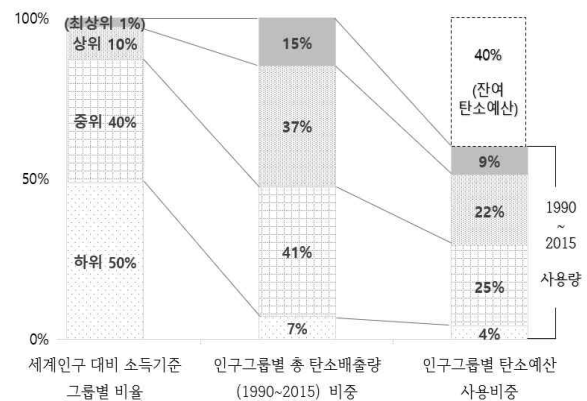
두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염수 농업, 탄소 포집(carbon capture)과 재사용, 태양열 발전, 자기부상열차, 도시 생태학,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구공학'이라 불리는 기술 중 '역배출 기술(NETs, 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은 공기 중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동물의 사육 없이 배양육을 생산하는 기술만으로도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96%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45% 절감하며, 토지 사용의 99%, 물 사용의 96%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국가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허용 한도에 대한 정책 수립, 벌채 감축, 산업 효율성 향상, 열병합 발전 및 쓰레기 재활용,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부보조금 전환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그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 공급 안정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에 의한 극복 방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솔라루프'와 '파워월' 등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을 결합하는 솔라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포괄적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경제 성장을 가속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만큼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세계 기후변화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지원하고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보건 및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암판부터 미국의 견잡을 수 없는 거센 산불까지 극심한 기후재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지구온난화의 임계점)를 초과하기 직전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다.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최근 연구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탄소불평등이 아마도 이러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1990년에 비해 2015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60%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누적 배출량은 2배 증가했다. 향후 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상, 2030년에는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그림 1> 참조).

이처럼 지난 2~30년 동안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왔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탄소예산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에 허비되어 왔다. 탄소불평등은 이렇듯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고 해도, 부유층이 사용하는 탄소배출량만으로도 몇 년 안에 탄소예산을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두 집단이다. 바로 오늘날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고갈된 탄소예산과 기후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구를 물려받을 우리의 후손들이다.



<그림 1> 옥스팜과 SEI의 '탄소불평등' 연구결과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슬로건 아래 불평등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탄소불평등 해소에 실패한다면, 이는 통제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SUV 차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개인 전용기 등에 고급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디지털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공 정책들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탄소예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한 정도로 제한하고자 할 때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 2015년 파리협정과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채택된 1.5도를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추정함.

<다>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이론은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말은 원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이워스는 이 개념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류와 지구 전체의 살림살이로 확장한다.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인류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이에 답하기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레이워스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비유를 통해 지구라는 도넛 위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래 세대까지 번영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현재 세대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 한계가 도넛의 바깥쪽, 즉 '지구 한계' 개념에 근거한 '생태적 한계'이다. 근대 이후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미증유의 압박을 주고 있

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대기오염과 플라스틱 오염, 생명 종의 멸종에 따른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현재 세계인구는 2050년에는 100억 명에 달하며 세계 경제 규모는 거의 지금의 세 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자재와 소비제품 수요, 그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한편 도넛의 안쪽은 물, 식량, 소득, 교육, 보건,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생활한다면 인류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 사회적 토대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고 좋은 삶을 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물질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 역시 일궈낼 수 없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 집, 저축, 안전을 잃어 국제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태적 한계'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전기자동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필수 원료인 리튬 채굴은 칠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담수를 고갈시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인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칠레 현지의 주민에게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이 떠안은 이러한 '사회적 기초'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21세기 현재 인류의 장래를 만들어 나갈 흐름이다. 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할까?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이처럼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가 균형을 이뤄 발전하는 사회 모델만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가>와 <나>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다>와 <그림1>을 활용하여, <가>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사고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가>에서는 지구 위기에 대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옥스팜(Oxfam)의 보도 자료로서, 기후 위기는 1990년~2015년 사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이 소득 기준 탄소배출량의 극명한 차이를 의미하는 '탄소불평등'에 있다고 고발한다. <다>는 '도넛 경제 모델'의 설명인데, 이는 인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조건으로서 지구라는 '생태적 한계'와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기초'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는 기술개발과 지원 정책, <나>는 탄소불평등 해소, <다>는 환경과 윤리의 균형에 주장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과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01-01]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은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장소와 영역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10통사01-02]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찾아내고, 이들을 비교·평가함으로써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10통사01-03]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안정,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으로 행위하고 성찰하는 삶 등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다.	제시문 <가>, <나>, <다>
	2. 사회과 교과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2]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장에 있음을 고려하면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10통사09-03]에서는 정치적·경제적 문제에 따른 국가 간 협력과 갈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과 삶의 변화, 생태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지구촌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자신이 지구촌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관련지어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가>, <나>, <다>
	3. 사회과 교과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기준 1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12정법06-01]에서는 오늘날 국제 관계의 변화를 세계화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국제 분쟁 해결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12정법06-02]에서는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탐색한다.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마이클 셀런버거	부키	2021	358-385	제시문 <가>	○
『유엔미래보고서』	박영숙, 제롬 글렌	교보문고	2016	280-284	제시문 <가>	○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기후정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의 핵심』	Oxfam	Oxfam Media Briefing	2020	보도자료	제시문 <나> <그림 1>	○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학교재	2018	12-14	제시문 <다>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사이토 고헤이	다다서재	2021	104-106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 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62-63	제시문 <가>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200-202	제시문 <나>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18	190-193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박영숙·제롬 글렌 『유엔미래보고서 2050』 교보문고, 2016, 280-284쪽

마이클 셀런버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부키, 2021, 358-385쪽.

<가>는 기후위기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가 대응하는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탄소 포집과 재활용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은 그러한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방향에 대해 집단 지성에 의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낙관하고 있다.

제시문 <나> : OXFAM MEDIA BRIEFING 2020년 9월 21일 www.oxfam.org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기후정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

<나>는 옥스팜의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0~2015년 사이 탄소배출량이 2배나 증가하였고, 그 주요 원인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탄소배출량 차이, 즉 탄소불평등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지속될 시 2030년에는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탄소불평등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탄소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급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공공 정책들을 통해 공적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 :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학』 학교재, 2018, 12-14쪽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다다서재, 2021, 104-106쪽

<다>는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

래'를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의 균형이 제시되고 있다. '생태적 한계'란 인류가 살아갈 터전인 지구의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사회적 기초'란 물과 식량, 에너지 등 인간 삶의 기초를 말한다. 이에는 경제적 안정과 평등, 공정 개념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기후 위기 관점으로 볼 때, 전지구적 과정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술 개발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적 기초'를 파괴하는 책임의 전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1. <가>와 <나>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300±30자)

(전제)

전 세계의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 대책을 내고 있다.

(탄소세와 탄소 예산 등 각국 정부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차이점)

- <가>는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 <나>와 비교해 볼 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치우쳐져 있다.
- <나>는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기후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 <나>는 탄소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 없이는 환경 위기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고급 탄소세를 부과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한다.
- <가>는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나>는 현재의 기후 위기 대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2.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

<그림 1> 설명

-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총 탄소 배출량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 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31%) 가량을 사용했다. 최상위 1% 부유층은 총 탄소 배출량만 15%에 달하며, 탄소예산의 9%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 예산의 두 배다.
- 하위 50% 빈곤층은 총 탄소 배출량의 7%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탄소예산 중 4%만을 사용했다.
-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탄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한다.

<다>의 주장

-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제안되었다.
-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면, 도넛 모양의 바깥쪽 원은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며,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를 나타낸다.
- 이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 사이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를 설계해야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이 경제 모델의 의의는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은 모두 불가결하게 필요하며 이 양자를 균형있게 결합해 가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 이는 <나>의 기후 위기의 책임이 탄소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된다.
- 또한 이것은 <다>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사업은 새로운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 따라서 <가>는 '생태적 한계'만을 극복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가 주장하는 기술 개발로 인해 환경 위기를 극복할 낙관적 방향도 '사회적 기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기후위기에 대한 제시문임을 기술】</p> <p>① 전 세계의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 대책을 내고 있다. (탄소세와 탄소 예산 등 각국 정부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시문 <가>의 대응】</p> <p>② <가>는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나>와 비교해 볼 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치우쳐져 있다.</p> <p>【제시문 <나>의 대응】</p> <p>③ <나>는 환경 위기의 주범으로 기후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p> <p>④ <나>는 탄소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 없이는 환경 위기는 극복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따라서 고급 탄소세를 부과하고, 공공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한다.</p> <p>⑤ <가>는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나>는 현재의 기후 위기 대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였으나 '차이점'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부족하면서 논리성이 불충분한 경우	6등급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그림 1>의 내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측정 ① 탄소불평등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탄소 배출량이 그 전과 비교하여 두 배나 상승했다. - 그런데 전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총 탄소 배출량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31%) 가량을 사용했다. 최상위 1% 부유층은 총 탄소 배출량만 15%에 달하며, 탄소예산의 9%를 차지하고, 이는 하위 50% 예산의 두 배다. - 하위 50% 빈곤층은 총 탄소 배출량의 7%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탄소예산 중 4%만을 사용했다. -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탄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한다. <p>【제시문 <다>의 논지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에서 주장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측정 ② '도넛 경제 모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제안되었다. -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면, 도넛 모양의 바깥쪽 원은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며, 안쪽 원은 '사회적 기초'를 나타낸다. - 이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 사이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체제를 설계해야 공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③ '도넛 경제 모델'의 의미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p>- 이 경제 모델의 의의는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은 모두 불가결하게 필요하며 이 양자를 균형있게 결합해 가야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p> <p>【제시문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에 적용】</p> <p>④ 제시문들과 통계를 근거로 다른 제시문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함.</p> <p>- 이는 <나>의 기후 위기의 책임이 탄소 불평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된다.</p> <p>- 또한 이것은 <다>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사업은 새로운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p> <p>⑤ 핵심적 주장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함.</p> <p>- 따라서 <가>는 '생태적 한계'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극복 방향으로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가 주장하는 기술 개발로 인해 환경 위기를 극복할 낙관적 방향도 '사회적 기초'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p> <p><유의 사항></p> <p>-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p> <p>-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p>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①과 ⑤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 ⑤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1-1.

제시문 <가>와 <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가>는 기후 위기를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며, 그 정책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비해 <나>는 환경 위기의 주범으로 탄소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탄소예산이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갈되고 있는 탄소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환경 위기가 극복되기 어렵기에 이를 해소할 공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가>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반면 <나>는 현재의 기후 위기 대책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1-2.

제시문 <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넛 모양의 바깥쪽은 '생태적 한계'를 나타내며, 안쪽은 '사회적 기초'를 나타낸다. 그리고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경제 모델은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는 것'과 '불평등 해소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균형있게 결합해야만 지속가능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1990~2015년 사이 총 탄소 배출량의 52%를 부유층 10%가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최상위 부유층 1%는 총 탄소 배출량 15%, 탄소예산의 9%에 책임이 있다. 그에 비해 하위 50% 빈곤층은 총 탄소 배출량의 7%와 탄소예산 4%에만 책임이 있는 바, 탄소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는 '생태적 한계'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사고하고 있을 뿐 '사회적 기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주장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새로운 환경 위기를 야기해 사회적 기초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다>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대책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성이 크다.

2-2. 문항카드 ② <인문계열 1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민 윤리, 사회적 약자, 능력주의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이 자연 상태는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상태이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재산 상에서 평등하며, 어떤 종류의 지배-종속 관계도 없이 만인은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는 무질서와 방종의 상태가 아니다. 거기에는 자연의 법이 있으며, 바로 이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자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자연 안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먹고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을 구하는 신체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에게 자연은 삶의 공동의 터전이다. 자연적 이성은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자신의 보존을 위한 권리,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음료를 마시고, 여타 자연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일러 준다.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신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익이 되도록 이용할 이성도 주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자연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근면한 자들은 토지를 개간하여 자연 그대로였던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식품과 옷감을 얻었으며, 그것으로 인류는 유용한 생활필수품을 충당했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그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나> 돌봄이 인간 삶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모든 정치 이론이 돌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에서 돌봄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서 돌봄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이 돌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의 분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며, 돌봄의 실천과 책임 분배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적 돌봄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돌봄 윤리가 전제하는 인간관은 기존의 민주정치 담론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관계 안에서의 존재로 인식된다. 개인과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을 마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취약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삶의 일정 구간에서 신생아나 고령자로서 또는 질병 때문에 극도로 취약한 삶의 구간을 지나게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신체 조건이 변화하여 일정한 시기에는 타인의 돌봄과 조력에 의지해야만 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이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기는 해도 언제나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건장한 성인도 매일 스스로를 돌보거나 타인의 돌봄을 받는다. 한 사회 안에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타인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한다. 돌봄의 능력과 필요의 처지가 상반되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듯 인간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돌봄을 이해한다면, 돌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공적 가치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돌봄이 없다면 사회도 존속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2010년대에 접어든 이래로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해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돌봄 혁명(Care-Revolution)’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 사회의 무게중심을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경쟁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집에서는 할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리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죠.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집에 계신 제 할머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요. 걷지 못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론 그전에 밥을 차릴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중 잣대라고 해야 할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학교는 경쟁을 통한 능력 향상을 중시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보살핌을 필요로 할 뿐, 능력을 키우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일은 없으니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내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데,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서서히 싹트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할머니를 돌보아야 하지 않나요.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런 모순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사람이 ‘영 케어러’^{*} 아닐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이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어릴 때는 어느 쪽이 좋은지 고민하죠.... 고등학생 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성적을 올리라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죠. 그렇지만 집에 계신 할머니는 능력이 줄어가도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가 질책하지 않아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인은 그런 법이라고 얼버무리죠. 저는 그 모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능력을 키워가고 그러면 좋은 평가도 받겠지만,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질책을 받지 않고, 질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도 그걸 비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저 역시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긍정하고 존중할수록 ‘그럼 내 학업과 학교생활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는 한쪽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고민을 하나로 줄일 수 있으니깐요.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되니까. 모순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 영 케어러(young carer): 고령이나 만성질환, 장애, 정신적 문제, 알코올/약물 의존 등이 있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

2-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

2-2. <다>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야기된 '돌봄 위기'는 이제껏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배제해온 돌봄의 가치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멈춰도 인간의 삶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으로서 돌봄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것이다. [계열문항 1-2]에서는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돌봄민주주의의 관점에 입각해 민주주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자유주의적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돌봄민주주의의 대표적 논자인 조안 C. 트론토의 핵심적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돌봄 윤리의 인간관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돌봄을 둘러싼 역할 갈등과 가치관 대립이 문제상황으로 드러난 구체적 현실 사례로서 '영 케어러'의 인터뷰를 제시하였다 수험생들에게는 각각의 제시문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력과 함께,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결지어 사고할 수 있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가>가 제시하는 독립적·자율적 인간관과는 달리, <나>의 돌봄민주주의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로 보고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돌봄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나>의 관점을 <다>의 구체적인 현실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능력주의적 가치관의 한계를 성찰하고 돌봄을 중심으로 인간과 공동체를 사유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통합사회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 [12생윤01-02]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첫째, 학생들이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윤리 이론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 문제와 쟁점들을 탐구하는 밑바탕이 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들에 따른 탐구의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윤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여 일상의 윤리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 <다>	

2.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p>(6) 사회 정의와 불평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통사06-01]에서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업적, 능력, 필요 등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나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그 장단점을 다루도록 한다. [10통사06-02]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공동선)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10통사06-03]에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을 다루도록 한다. 	제시문 <가>, <나>, <다>

3.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p>(4)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사문04-03]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의 양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제시문 <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의 문제」	백종현	『철학논구』 제26집	1998	14-16	제시문 <가>	○
『돌봄민주주의』	조안 C. 트론토	박영사	2014	77-87	제시문 <나>	○
『영 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청년의 현실』	시부야 도모코	황소걸음	2021	121-123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95-102	제시문 <가>	○
통합사회	최원희 외	미래엔	2018	170-175	제시문 <나>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 : 백종현, 「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 문제」, 『철학논구』 제26집, 1998, 14-16. (발췌 재구성)

제시문 <가>는 로크의 『통치론』에 제시된 인간관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이라는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가>는 자연 상태에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가>는 주장한다.

- 제시문 <나> :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희강 옮김)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14, 77-87. (발췌 재구성)

<나>는 돌봄민주주의의 대표적 논자인 조안 C. 트론토의 글이다. 이 글은 돌봄민주주의의 주장과 민주적 돌봄 윤리를 설명하고, 돌봄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구체적 사례로서 독일의 '돌봄 혁명'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돌봄민주주의의 중심 주장은 '돌봄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주장은 돌봄의 실천과 책임 분배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적 돌봄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돌봄 윤리가 전제하는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생애 주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닌 존재로서 서로 돌봄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따라서 돌봄의 가치는 보편적인 공적 가치임을 이 글은 강하게 주장한다.

- 제시문 <다> : 시부야 도모코, 『영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청년의 현실』, 황소걸음, 2021, 121-123. (발췌 재구성)

<다>는 영 케어러의 실태를 말해주는 인터뷰 자료이다. 이 대목은 할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청소년이 등교 거부에 빠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 케어러인 화자는 학업과 돌봄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가치관과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가는 할머니를 돌보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집'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논제의 구성

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

· 제시문 <가>의 인간관

- <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하다.

- 인간은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그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가>는 주장한다.

· 제시문 <나>의 인간관

- <나>가 제시하는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생애 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니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 <가>와 <나>의 인간관 비교

-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러한 <가>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가치 창출의 소유를 허용하는 능력주의적 인간관인 데 비해, <나>는 상호의존성과 상호 돌봄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인간관이다.

2. <다>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 하시오. (600±60자)

· <다>의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

- <다>의 '문제적 상황'은 일차적으로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개인 차원의 역할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더 나아가 이 문제상황은 '학교'와 '집'에서 작동하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능력주의적 가치관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보는 데에 큰 가치를 두는 '집'의 가치관과 양립하기 어렵다.

- 이 때문에 영케어러는 경쟁과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다.

· 돌봄민주주의적 대응 방향

- '영 케어러'가 개인적 차원에서 겪는 역할 갈등은, 제시문 <나>가 제안하는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모든 민주 시민이 돌봄에 참여하는 상호책임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다.

- 또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의존성을 흠결로 규정하지만, 돌봄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독일에서의 '돌봄 혁명' 논의처럼 이와 같은 가치관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문항 1-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p>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가>의 인간관에 대해 요약되어야 함】</p> <p>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상호 평등함.</p> <p>② 인간은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한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지니며,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함.</p> <p>【제시문 <나>의 인간관에 대해 요약되어야 함】</p> <p>③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생애 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니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p> <p>【<가>와 <나>의 인간관을 서로 비교해야 함】</p> <p>④ <나>에 따르면 <가>의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 <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치 창출의 소유를 허용하는 능력주의적 인간관인 데 비해, <나>는 상호의존성을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인간관임.</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모두를 충족하고, 우수한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모두를 충족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 등 표현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을 충족했지만,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3등급
	①, ③, ④를 충족했지만, ②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과 ③을 충족했지만, ②와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을 충족했지만, ②, ③, ④를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6등급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7등급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 및 문장 표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8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2	<p>[문항 1-2] <나>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p>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문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의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함】

- ① 영 케어러는 경쟁(학업)과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임.
- ②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은 일차적으로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함. ‘학교’와 ‘집’에서 작동하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능력주의적 가치관은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보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집’의 가치관과 양립하기 어려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서술해야 함】

- ③ ‘영 케어러’가 개인적 차원에서 겪는 역할 갈등은 제시문 <나>가 제안하는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④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실천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주장함. 또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흠결을 지닌 존재로 판단하지만, 돌봄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상호의존적 존재라고 주장함. 이처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변화,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독일에서의 ‘돌봄 혁명’ 논의처럼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나 개인적 미덕의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서술한 경우는 정답으로 간주하지 않음.)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하고 우수한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했지만, 문장과 정서법(正書法) 등 표현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를 충족했지만, ④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③, ④를 충족했지만, ②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과 ③을 충족했지만, ②와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을 충족했지만, ②, ③,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6등급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7등급
문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구성 능력 및 문장 표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2-1.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을 의미하며, 개인 간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평등하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나>가 제시하는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생애 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성을 지니므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2-2.

제시문 <다>에서 영 케어러는 경쟁과 돌봄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은 영 케어러가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 '역할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노력과 경쟁을 통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학교의 능력주의적 가치관과,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보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집에서의 가치관이 충돌해서 발생한 문제적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나>에서 제안한 돌봄민주주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돌봄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실천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처럼 돌봄이 공공재로서 존재했다면 영 케어러는 역할 갈등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의 '돌봄혁명'과 같은 가치관 전환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킨다면 제시문 <다>와 같은 '문제적 상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3. 문항카드 ③ <인문계열 2회차 1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돈줄', 브랜드 숭배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1

<가> '돈줄'이란 '돈'과 '흔썬'을 결합한 신조어로서, 정의로운 일을 하거나 선행을 베푼 소상공인의 제품을 적극 구매하는 행위를 이르는 신조어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것'과 '흔썬이 날 정도로 바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소비인 돈줄의 대상으로 지목된 가게는 주문이 폭주하고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2018년 '소울워커 기부 대란'을 필두로 2019년 4월 착한 닭갈비, 2019년 7월 파스타 전문점, 2021년 2월 어린 형제에게 온정을 베푼 치킨전문점 등이 돈줄이 난 업체의 대표적 보기이다.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연출한다는 점에서, 돈줄은 가치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해 가고 있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미닝아웃은 행위의 의미를 뜻하는 '미닝(meaning)'과 바깥으로 드러냄을 뜻하는 '아웃(out)'의 합성어로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돈줄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업주와 기업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신념을 타인과 공유하고 타인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돈줄은 가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일상의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해 경제력을 사용하는 미닝아웃에 해당한다.

얼마 전까지 미닝아웃 소비는 주로 친환경 제품 소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신념 소비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 간에도 미닝아웃 소비 경험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컨대, 청년 세대의 미닝아웃 소비는 돈줄 소비와 슬로건 패션(슬로건을 새긴 옷이나 가방 구매) 등 자신의 가치관이나 견해와 부합하는 사회적 의견을 표출하는 데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적극적이다. 반면에 다른 세대는 플라스틱 프리,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 로컬푸드 등의 환경보호 구매나 공정무역 제품 소비 등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다.

<나> 부유층 중장년의 브랜드 소비가 지위 확인이라는 욕구의 발현 성격이 강한 데 반해, 청년층의 브랜드 소비는 순수한 자기표현의 성격이 강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새로운 소비자들이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을 연출하는 과정은 그들이 소비하는 브랜드에 대한 '숭배'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은 숭배 대상인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하면서 자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브랜드 소비는 일종의 숭배 의례이다.

브랜드 숭배 의례는 신상품 발표회에서 시작된다.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에서 유명 브랜드들은 소속 디자이너들의 개성이 담긴 신상품 견본을 공개한다. 공개된 품목별 제품군은 관련 뉴스와 화보·동영상, 그리고 숭배자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된다. 자기표현의 나르시시즘을 권장하는 현 시대의 브랜드 소비는 지위 확인이나 상승에 의미를 두는 대신 세련된 감성과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실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제품을 착용하는 순간의 강렬한 황홀함에 가려서 그것이 국제적 분업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 강의 물빛을 변하게 했는지는 묻혀 버린다.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현대의 브랜드 숭배자들은 오직 즉각적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아름다움의 감각과 황홀함을 추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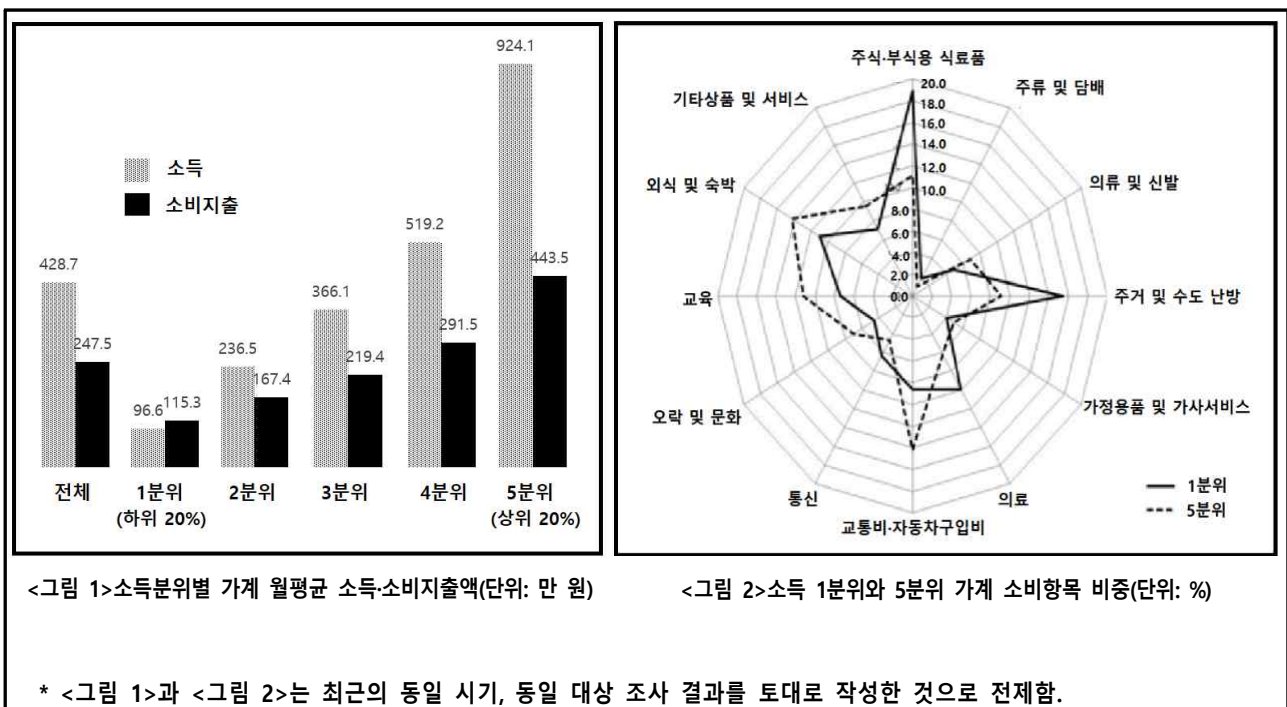
이러한 충만의 경험은 특히 20~30대 소비자에게서 두드러진다. 소득 수준이 낮아서 브랜드 제품군 가운데 겨우 한 품목만 어렵사리 '장만'하는 소비자 부류, 그것을 구입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에게조차 개인적 충족의 경험은 절대적이다. 이들은 '신상'(신상품)을 착용할 때 스스로 '블링블링'(반짝반짝 빛난다는 뜻)해지는 경험 자체에 충실하다. 소비도 축적의 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비웃듯이, 브랜드 숭배자가 체험하는 느낌은 축적되거나 보존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브랜드 제품 소유를 통해 자신과 브랜드의 동일시를 완성한다. 그 의례 안에서 숭배자는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 상상한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 순간 성스러움의 세계에서 재탄생하게 되면서 브랜드 숭배 의례의 한 주기가 완성된다.

<다>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선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의 원칙에 따라 가계는 제한된 소득에 맞춰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얼마를 주고 살지 결정할 때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소비를 하게 된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소비 행동에서 합리성은 이러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인식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그것이다. 우선, 인식적 합리성은 소비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자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능력을 뜻한다. 이 측면에서, 소비하기 전에 구매할 물품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해서 비합리적 소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적 합리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비합리적 소비 사례로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경우, 치밀한 사전 계획 없는 상태에서 소비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합리성**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관계한다.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행동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환경을 인식하는 소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소비는 윤리적 소비와도 통한다.

소비 행동에서 사회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선호 대신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야 하므로 개인적 만족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개인이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소비를 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교역 불평등과 노동 착취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환경재해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 이렇게 소비자가 경제적 합리성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사회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소비할 때,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 1-1.** <다>의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계의 소비 특성을 설명하시오. (300±30자)
- 1-2.** <가>의 '돈줄'과 <나>의 '브랜드 숭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이 소비 행동들을 <다>의 '사회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대 청년 세대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소비 행동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을 배경적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수험생들이 '돈줄'과 '브랜드 숭배'라는 새로운 소비 행동과 가계 소비 동향 자료를 고교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배운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문해력이 문자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에 관계했다면, 최근에는 <표>나 <그래프> 등 숫자와 시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데이터 문해력'의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세 개 제시문과 함께 그래프를 함께 제시해서, 이에 대한 능력도 함께 평가하고자 했다.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이 문항은 세 개의 제시문과 부가되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 텍스트들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2개를 구성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관련 성취기준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5) 시장경제와 금융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129쪽)		제시문 <가> 제시문 <다>
	(3) 문화와 일상생활 [12사문03-02]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한다.		제시문 <나>
	(5) 시장경제와 금융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에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을 다루도록 한다. (131쪽)		제시문 <다> <그림 1> <그림 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3]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의 양상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신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251쪽)		제시문 <다> <그림 1> <그림 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소상공인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브랜드 자산, 소비자 윤리의식, 지속사용 의도와 의 관계”	신지원	「문화와 융합」 44권 4호	2022	1094-1095	제시문 <가>	○
“미닝아웃 소비조사”	롯데멤버스		2022		제시문 <가>	○
“신성한 놀이로서의 브랜드 숭배”	이황직	「사회이론」 41호	2012	9-12	제시문 <나>	○
“청소년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권미희·이기춘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8권 2호	2000	2-3	제시문 <다>	○
“사회적 합리성의 다양성”	정재환	「평화연구」	2015 봄호		제시문 <다>	○
‘소득분위별 가게 월평균 소득 소비지출’	통계청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2021		<그림 1>	○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손연정·강동우·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9-14)	2019	29	<그림 2>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 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38-141	제시문 <가> 제시문 <다>	○
통합 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132-133	제시문 <가> 제시문 <다>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154	제시문 <다> <표 1>, <표 2>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신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브랜드 자산, 소비자 윤리의식, 지속사용 의도와의 관계,” 『문화와 융합』, 44권 4호(2022) / 롯데멤버스 라임 ‘미닝아웃 소비조사’(2022년 5월). 수정 활용.

<가>는 최근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돈쫄’ 소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문단은 돈쫄을 정의로운 일을 하거나 선행을 베푼 소상공인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돈쫄의 의미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으로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미닝아웃 소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문단은 돈쫄을 주도하는 청년 세대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견해에 부합하는 소비에 관심이 있는 데 비해 환경보호와 공정무역 제품 소비에는 덜 관심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나>: 이항직, “신성한 놀이로서의 브랜드 숭배,” 『사회이론』 41호(2012), 9-12쪽.

<나>는 흔히 과시적 소비의 사례로 알려진 해외 패션 브랜드 소비(명품 소비)를 일종의 숭배 의례로 분석하고, 특히 새로운 젊은 소비자들은 이를 지위 과시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충족에 관심이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에 따르면, 브랜드 숭배는 패션위크의 디자이너 신상품 발표회에서 시작해서 구매자들이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면서 성스러움의 세계에서 재탄생하는 것으로 한 주기가 완성된다. 브랜드 숭배자들은 실제 제품이 국제 분업 과정의 산물로서 노동과 환경 문제와 교역불평등 문제를 낳는 데는 관심이 없다.

제시문 <다>: 권미희·이기춘, “청소년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2호(2000). 2-3쪽. / 정재환, “사회적 합리성의 다양성,” 『평화연구』, 2015년 봄호(2015). 수정 활용.

<다>는 소비 행동을 여러 합리성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 문단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을 언급하고, 가계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소비 행동에서 인식적 합리성을 소비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자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능력 측면에서 설명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에서는 사회적 합리성을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소비로 정의하고, 개인적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소득분위별 소득과 소비지출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득 1분위 계층은 소득에 비해 소

비지출이 많아서 소비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는 1분위와 5분위의 소비 비중을 설명하고 있는데, 1분위는 식료품과 주거 비용 등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데 반해 5분위는 여가 및 교육 등 선택적 소비 항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제의 구성

1-1. <다>의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계의 소비 특성을 설명하시오. (300±30자)

- 첫 번째 문항에서는 <다>의 첫문단에서 언급한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선택' 개념을 가계에 적용하기 위한 원리적 측면을 통해서, <그림 1>에서 특히 1분위 소득 계층의 경우 소비 여력이 없다는 점과 <그림 2>에서 실제로 소비지출 항목의 차이를 통해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가>의 '돈줄'과 <나>의 '브랜드 숭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이 소비 행동들을 <다>의 '사회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시오. (600±60자)

- 두 번째 문항의 첫 질문에서는 <가>와 <나>를 읽고 두 소비 행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구성되었고, 후반부 질문은 <다>의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원리에 맞춰 <가>와 <나>의 소비행동에 적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다>의 첫 문단의 관점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의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선택'의 관점을 가계에 적용해서 이해한 능력을 측정함 ①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은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계는 소득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므로 소비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의 합리적 소비계획을 수립하게 됨을 이해해야 함.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가계의 제한된 소득, 소비 항목 구성의 합리성 <p>【<그림 1>과 <그림 2>의 분석과 <다>에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과 <그림 2>의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의 '가계'의 경제적 측면의 합리적 선택 원리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 ② <그림 1>과 <그림 2>의 정보를 충분히 읽어냈는지를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1>에서 1분위가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커서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것을 포착해야 함. - <그림 2>는 1분위와 5분위의 소비항목을 비교한 것으로서, 특히 그래프 상의 표시들이 절대값이 아니라 '자기 분위 전체 소비에서의 항목별 비중'임을 이해해야 함. 만약 절대값으로 잘못 이해한 서술은 하위 등급임. - 1분위 소비 특성: 필수재 항목(주식·부식용 식료품, 주거와 수도 난방, 의료, 통신)의 높은 소비지출 비중. - 5분위 소비 특성: 선택적 지출 항목(오락 및 문화, 외식·숙박, 교통비와 자동차구입비, 의류 및 신발, 교육)의 비중이 높음. - <그림 2>에서 1분위와 5분위 소비항목을 필수재와 선택재로 구별하여 '범주화'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채점 기준임. 소비 항목들을 나열만 한 경우는 상위 등급이 될 수 없음 <p>③ 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1분위 가계와 5분위 가계의 소비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 가계의 제한된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 여력에 따라) 소비 항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면 상위 등급임. - 기타 해석할 내용: 소비 여력에 따른 소비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계층간 불평등의 지속에 기여한다는 것을 추론하면 상위 등급임. (그 근거로 5분위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편익을 제공하는 항목 지출 비중 높음 제시). • 예시답안 참조 <p>- Key Word : 1분위의 필수재 소비, 5분위의 선택적 소비, 소비불평등.</p> <p>④ 답안 서술의 체계성이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의 기준(관점)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서술 과정에 기준(관점)을 활용해야 함. - 1분위와 5분위의 소비 특성을 비교하면서 서술해야 함.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고, ④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④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③, ④를 충족하고, ②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과 ④를 충족하고, ②와 ③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을 충족하고, ②, ③, ④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 파악 후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능력 측정
- ① <가>와 <나>의 공통점 찾기
 -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는 점.
 -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의 본래 사용가치보다는 그것에 사후적으로 부가된 가치를 통해서 내면적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
 - 소비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연출 행위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의미 추구 행위로 인식한다는 점.
 - * 3개 항목 중 2번째와 3번째 항목을 서술하면, 상위 등급임.
- ② <가>와 <나>의 차이점을 찾기
 - <가> 돈쥬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타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로 확산해 가는 능동적 행위인 데 반해, <나> 브랜드 숭배는 유명 패션 브랜드 제품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의례적 행위
 - 돈쥬는 특정한 물품에 열매이지 않고 가치를 따라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데 반해, 브랜드 숭배는 브랜드 제품 자체에 종속된다.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내면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자기 연출, 정체성 형성, 의미 추구 행위, 사회적 가치 추구 행위, 의례적 행위.

【제시문 <다>의 사회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가>, <나> 소비를 평가】

- 제시문 <다>에서 서술된 사회적 합리성 개념을 통해서 <가>의 돈쥬와 <나>의 브랜드 숭배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능력 측정
- ③ <가>의 돈쥬를 사회적 합리성의 개념과 원리를 통해 평가하기
 - 사회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소비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서술함
 -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매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 소비를 통해 사회정의와 공동선 추구에 기여한다는 점.
 - 사회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
 - 개인적 만족도가 높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비에 치우치지 않고 친환경경과 공정무역 등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
 - 이 항목들을 ‘사회적 합리성’의 개념을 통해 서술하기
- ④ <나>의 브랜드 숭배를 사회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
 - 사회적 합리성이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서술함.
 - 개인적 만족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라는 점..
 - 유명 패션 브랜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착취, 환경오염, 교역불평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시킨다는 점에 무관심한 점.
 - 이 항목들을 ‘사회적 합리성’의 개념을 통해 서술하기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사회적 합리성, 돈쥬, 브랜드 숭배.
- ⑤ 답안 구성과 서술의 체계성을 평가함
 - 답안 구성이 체계적이어서 충분한 정보를 담아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 답안 서술시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②,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①이 부족한 경우

3등급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①과 ③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세 개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1-1.

합리적 선택의 원칙에 따르면 가계는 제한된 소득에 소비항목을 조정한다. 1분위 소득계층은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서 소비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부식용 식료품, 주거와 수도 난방, 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항목의 소비 비중이 높고, 오락 및 문화, 외식·숙박, 교통비·자동차구입비, 의류 및 신발, 교육 등 선택적 지출 항목의 비중은 낮다. 반면에 5분위 소득계층은 소비지출 수준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필수재 소비 비중이 낮고, 대신 가계 구성원의 선호와 미래 투자와 같은 편익을 제공하는 선택적 항목의 지출 비중이 높다.

1-2.

<가>의 돈쥌과 <나>의 브랜드 숭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추구하지 않고, 물품의 본래 사용 가치보다는 부가된 가치를 통해서 내면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연출, 즉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의미 추구 행위로 소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돈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공유해서 사회적 가치로 확산해 가는 능동적 행위인 데 반해, 브랜드 숭배는 제품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만족감을 중시하는 의례적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돈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업체의 물품 소비를 통해서 그 가치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나아가 타인의 구매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정의로움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합리성을 충족한다. 다만 개인적 만족도가 높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비에 치우치지 않고 친환경과 공정무역 등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브랜드 숭배는 브랜드가 구축한 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로서 국제 분업 과정에서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역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므로 브랜드 숭배는 사회적 합리성을 충족한 소비가 아니다.

2-4. 문항카드 ④ <인문계열 2회차 2번 문항>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매체, 미디어, 전체주의, 무위자연, 장자
예상 소요 시간	50 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계 열 문 항 2

<가> 괴벨스는 라디오와 미디어의 무궁한 잠재력에 눈길을 돌린 소수의 정치가 중 한 명이었다. 모두들 인쇄 매체에 몰두해 있을 때 당시의 뉴미디어였던 전파 매체의 중요성을 수뇌부에 힘주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1925년 12월 그가 일기장에 쓴 글을 보면 정치 예언자로서의 재능을 엿볼 수 있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를 각 가정에! 독일인들은 라디오의 소명과 조국을 잊고 있다! 라디오, 그것은 현대적인 투창(投槍) 수단이다! 각 가정에 모두 라디오를! 그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 모두의 목표다!”

물론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정치 선전과 국민의식 일체화였다. 그래서 나치스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방송협회를 수중에 장악하는 일부터 서둘렀다. 괴벨스의 방송 정책은 국유화와 중앙집중화 두 마디로 요약된다. 괴벨스는 이를 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국민 보급형 라디오 세트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누구나 소유할 수 있도록 보급했다. ‘국민 수신기’라 불리며 76마르크에 판매된 라디오는,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그들의 통치 기간에 700만 대가 보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독일 가정의 70% 이상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세계 최고의 보급률이었다. 그는 철저한 방송의 통제라는 면에서도, 그리고 라디오의 양적인 보급에 있어서도 선구자로 기록되는 극단적 인물이다.

라디오 덕분에, 라디오를 십분 활용한 괴벨스의 전략 덕분에 히틀러는 체제 홍보와 국민의식 조작을 용이하게 펼칠 수 있었다. 괴벨스의 방송에 대한 집착은 라디오에 그치지 않고 텔레비전이라는 당시의 첨단 뉴미디어에 도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35년 3월 22일 세계 최초로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독일 내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다.

괴벨스는 대중에게 최면을 걸어 자신이 창조한 히틀러 신화를 국민들의 뇌리에 일사불란하게 각인시킨 탁월한 정치기술자였다. 대담한 조명과 대중을 현혹하는 무대장치, 그리고 간결한 리더십의 메시지를 넣어 자연스레 ‘위대한 지도자’상을 국민들의 뇌리에 심었다. 히틀러가 국가 전체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괴벨스가 구축한 대중 장악력이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통제 아래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배달의 민족’은 2019년 1월부터 배달 음식점업체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매출 관리 기능이 있는 ‘배민 **장부**’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업체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해당 앱 업주 전용사이트의 아이디를 배민 장부에 기입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손쉽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

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업체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각 카드사별 매출액, 예상 카드수수료나 입금액 등 카드 매출뿐 아니라 주문 수와 조회 수, 통화 수 등도 정기적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일 단위뿐 아니라 월 단위로도 확인이 가능하여 전월 대비 매출액 변화 등 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관리 및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대금 입금의 지연이나 누락에 따른 피해를 줄여 유연한 자금 관리도 가능하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배달의 민족뿐 아니라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의 매출까지 배민 장부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점업체의 필요를 수용한 결과로, 연계되는 배달의 민족 앱뿐 아니라 주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 정보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근시일 내에 카드 매출 이외에 현금영수증 매출, 휴대폰 소액결제 매출, 각종페이 매출 등 결제 수단별 내역과 더 많은 배달앱 매출,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까지 통합 관리하여 고객사를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배민 장부에 자신들의 업체 정보를 기입하여 가입하는 대가로, 배달 음식점업체는 매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어 이들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매출 관리의 편리성이라는 가치 및 편의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배달 음식점업체는 지속적으로 장부를 이용하며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배민 장부는 배달 음식점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다> 상자를 열거나, 주머니를 뒤지거나, 껌팩을 여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노끈으로 꼭 엮매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야 한다. 그래야 그 안의 물건을 지킬 수 있으니 이것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적을 막을 수 있는 지혜이다. 그러나 정작 큰 도적은 껌팩을 짚어지고 상자를 둘러메고 주머니를 통째로 들고 달아나면서 노끈과 자물쇠가 풀려 속의 물건이 흩어지지 않을까만을 걱정한다.

이에 대해 더 논해 보자.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지자(智者)로서 큰 도적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 이른바 성인(聖人)으로서 큰 도적을 지켜주지 않은 이가 있는가? 무엇으로써 그러함을 아는가? 옛날 제나라는 이웃 고을이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 소리가 서로 들리며, 짐승과 새를 잡으려는 그물이 쳐지는 곳과 쟁기와 팽이로 경작되는 땅이 사방 이천여 리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방 국경 안에 종묘와 사직을 촘촘히 세우고 온 나라 안의 마을들을 다스렸으니, 어느 하나라도 지자와 성인이 만든 법과 제도를 본뜨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

전성자(田成子)가 하루아침에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도둑질하였다. 그가 도둑질한 것이 어찌 그 나라의 땅뿐이겠는가? 그 성인의 지혜에서 나온 법과 제도까지도 아울러 도둑질하였다. 그러므로 전성자는 도적이란 명칭은 붙여졌어도 몸은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편안히 지냈다. 조그만 나라는 감히 그를 거스르지 못하여, 12대에 걸쳐 제나라를 통치하였다. 그의 도둑질과 편안함은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성인의 지혜에서 나온 법과 제도가 온 나라에 잘 뻗쳐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을 위하여 되를 만들어 해아리면 곧 되를 아울러 쓰면서 도적질하게 된다. 세상을 위하여 저울을 만들어 무게를 달면 곧 저울을 아울러 쓰며 도적질하게 된다. 세상을 위하여 도장을 만들어 믿게 하면 곧 도장을 아울러 쓰며 도적질하게 된다. 세상을 위하여 인의(仁義)로써 그릇됨을 바로 잡으려 하면 곧 어짐과 의로움을 아울러 쓰며 도적질하게 된다. 허리띠 고리를 훔친 자는 처형을 당하지만 나라를 도적질한 자는 왕이 된다. 도적질한 나라 안에는 지혜에서 나온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지혜로써 만든 법과 제도가 백성을 엮매고 있었기에 나라를 도적질함이 쉬웠던 게 아닌가?

<장자(莊子), 『장자』 중에서>

2-1. <가>의 '라디오'와 <나>의 '장부'의 유사성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300±30자)

2-2. <다>에서 경계하는 바를 요약하고, 이를 참조하여 <가>와 <나>가 구축해나가는 사회의 위험성을 기술하십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현대인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라디오, 인터넷망, 앱 등의 기술이 지닌 위험성을 포착할 수 있는가, 이를 『장자』가 일찍이 경계한 바 있는 인간이 엮고 만든 법의 위험성과 연관지어 사고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가>에서는 라디오라는 뉴미디어가 독일의 각 가정에 보급되는 의도와 과정을 실었고, <나>에서는 현대의 기술 플랫폼을 대표하는 업체의 하나인 '배민 장부'가 고객을 모으는 과정을 수록하였다. 이 두 지문에 나타난 '라디오'와 '장부'는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이면적 속성에서 볼 때는 '흩어져 있던 하위 구성원을 하나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첨단 매체, 그렇기에 언제든지 일사불란하게 구성원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2-1'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잘 포착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장자는 인간이 만든 조직의 위험성을 일찍이 간파한 적이 있었다. 예시문 <다>에는 장자의 이런 사상이 비유적, 예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2-2'에서는 이 비유가 담은 뜻을 요약하고, <가>와 <나>에 나타난 사회에 적용시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과목】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과목】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5) 시장경제와 금융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나>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기준 1 (3) 문화와 일상생활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가>
	과목명: 경제	
	성취기준 1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12경제01-04] 가게,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제시문 <나>

과목명: 세계사		
성취기준 1	(5)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12세사05-02] 제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정치와 법		
성취기준 1	(1) 민주주의와 헌법 [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3) 정치과정과 참여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시문 <가>

1. 교과명: 윤리와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4) 과학과 윤리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 1	(2) 동양과 한국윤리사상 [12윤사02-06] 노자와 장자 사상을 탐구하여 도가적 세계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도교의 성립 및 한국 고유사상과의 융합을 조사하여 우리 전통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狂氣의 시대, 지식인의 두 얼굴	손관승	『관훈저널』 67	1998	293~294	제시문(가)	○
요제프 괴벨스	정철운	인물과사상사	2018	77~84	제시문(가)	○
배달앱 ‘배달의 민족’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최유정 이제호	한국경영학회 2019년 제21회 융합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경영학회)	2021	16~17	제시문(나)	○
장자	장자 지음 김학주 번역	연암서가	2010	245~250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	2020	182~189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28~130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0	74~78	제시문 <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손관승, 「狂氣의 시대, 지식인의 두 얼굴」, 『관훈저널』 67, 1998, 293~294 ; 정철운, 『요제프 괴벨스』, 인물과사상사, 2018, 77~84. 발췌 재구성

<가>는 괴벨스가 라디오를 활용하여 어떻게 나치 정권을 이끌었던가를 보여주는 지문이다. 괴벨스는 라디오가 지닌 획일화 기능을 간파한다. 이에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의 각 가정에 라디오를 보급하여 독일 국민을 하나로 묶는다. 라디오가 전국에 보급되자 독일 국민은 하나의 조직망으로 구축되었고, 체계를 통하여 중앙의 메시지를 각 가정에 넣음으로써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제시문 <나>: 최유정, 이제호, 「배달앱 ‘배달의 민족’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19년 제21회 융합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경영학회, 2021, 16~17면. 발췌 재구성

‘배민 장부’는 전국의 배달음식업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다. 배민은 무료로 이 앱을 보급하면서 카드 매출 관리, 일단 위와 월 단위의 매출 정보 등을 개별 배달업체에 제공한다. 이 편의를 통하여 더 많은 고객사를 모을 수 있으며 고객사들은 장부에 더 의존하게 된다. 고객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배민장부의 시장지배력은 더 높아져 간다.

제시문 <다>: 장자 지음, 김학주 옮김, 『장자』, 연암서가, 2010, 245~250면. 발췌 재구성

주머니나 상자나 껌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들을 노끈으로 꼭 묶고 자물쇠도 더 단단하게 잠그려 한다. 하지만 큰 도둑은 껌 묶인 주머니나 상자, 껌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풀려 흩어지지 않아 한 손에 들고 도망가기에 더 좋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 비유를 잘 짜여진 나라의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제나라는 종묘와 사직으로 잘 짜여 전국이 번성하였지만, 오히려 잘 짜여진 법과 제도 때문에 전성자에게 쉽게 도둑 맞고 말았다. 지자나 인자가 만든 되, 저울, 도장, 인의 등의 도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백성들을 잘 엮어두면 둘수록 나라는 잘 짜여진 듯 보이지만 오히려 큰 도둑은 이를 더 쉽게 훔쳐가게 된다. (인위적인 것은 임시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무위의 자연 상태로 사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말)

■논제의 구성

[2-1] <가>의 ‘라디오’와 <나>의 ‘장부’의 유사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300±30자)

- 본 문제는 학생들이 면밀한 독서를 통하여 사회 현상 이면에 숨어 있는 공통 속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묻고자 하였다. <가>의 라디오는 히틀러가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고, <나>의 장부는 현대 자영업자들의 영업 관리를 돕는 것이기에 피상적으로 볼 때는 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이 둘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디오는 정보를 내보냄으로써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장부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을 하나의 체계로 유입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 둘은 중앙에서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위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 고안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이외 라디오나 장부는 시대는 다르지만 각각 그 시대를 대표할 만

한 새로운 매체란 점, 그것을 배포하는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구성원들을 끌어 모으려 한다는 점 등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2-2] <다>에서 경계하는 바를 요약하고, 이를 참조하여 <가>와 <나>가 구축해나가는 사회의 위험성을 기술하시오. (600±60자)

- <다>는 《장자》에서 인용한 것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일괄적인 질서가 지닌 위험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지문의 첫 단락은 “도둑이 상자를 훔칠 때 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상자를 훔치기가 쉽다”는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비유가 “나라를 훔칠 때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잘 잡혀 있을수록 그 나라를 훔치기가 쉽다”를 원관념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또 나라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되, 저울, 도장, 인의’ 등이 사실은 나라를 일률적으로 만들어 그 나라를 훔치려는 도적을 돕는 데 쓰일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이후, 이러한 ‘일률적 통제’라는 속성들이 ‘라디오, 장부’가 지닌 속성과 유사함을 포착하여 기술하도록 논제를 구성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p>■ 답안의 구성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안이 질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2-1]에 대한 답안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및 형식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p> <p>■ 내용 요소</p> <p>* ‘라디오’와 ‘장부’의 공통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p>① 핵심공통점 : (흠어진, =개별적인) 구성원(=국민, 업체)을 하나로 엮음(= 체계화함, 조직함, 묶음 등등)</p> <p>② 부수적 공통점 : 둘다 뉴미디어임(= 새로운 기술), 저렴하게(=무료로) 보급함.</p> <p>* 상세화한 내용이 포함될 것.</p> <p>③ 라디오와 장부가 ‘흠어진 구성원을 어떻게 하나로 엮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화된 설명이 있을 것.</p> <p>■ 형식 요소</p> <p>④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정서법에 부합하는가?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환문하여 표현했는가?</p> <p>⑤ ‘라디오’에 대한 설명과 ‘장부’에 대한 설명의 분량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1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③, ④ ⑤를 충족하나 ②가 미흡한 경우	3등급
3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4등급
①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②, ③, ④, ⑤는 적절한 경우.	5등급
5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모두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가 미흡한 경우.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내용만 그대로 발췌하여 그럴듯하게 이어붙이기 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문제 2-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2	<p>■ 답안의 구성 요소</p> <p>-답안이 질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p> <p>[2-1]에 대한 답안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및 형식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p> <p>■ 내용 요소</p> <p>* 장자의 내용이 정확히 요약되어야 함.</p> <p>① 핵심 요약 : 법과 제도(=기술)로 역인 나라는 큰 도둑에게 도둑맞을 위험이 있다. (가산점 요인: “주머니, 상자, 껌짝 등이 더 단단하게 묶이면 묶일수록 도둑이 훔치기 좋은 상태가 된다. → 법과 제도가 잘 짜이면 잘 짜일수록 사회는 더 위험해진다.”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비유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므로 우선 선발할 것.)</p> <p>* 장자의 비유를 파악하고 있을 것</p> <p>② 장자가 예시로 든 되, 저울, 도장, 인의, 종묘와 사직, 잘 묶인 주머니, 상자, 껌짝 등이 온 나라 백성을 엮어 하나로 만들고 있는 법과 제도의 대유임을 알고서 답안을 쓰고 있는가를 볼 것.</p> <p>* 장자의 비유가 조직화된 현대 사회와 잘 대응하여 기술되어 있을 것.</p> <p>③ 조직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획일화되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장자의 경고를 <가>와 <나>의 획일화에 대응하여 표현하고 있는가.</p> <p>■ 형식 요소</p> <p>④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정서법에 부합하는가?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환문하여 표현했는가? ⑤ <다>의 요약 분량이 절반, <가>, <나>의 위험성이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느 한쪽도 전체 분량의 70% 이상을 넘어가면 감점 요소임.</p> <p><유의 사항></p> <p>-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p>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가 미흡한 경우.	3등급
3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나, ①, ②, ③ 중 두 개가 미흡한 경우.	5등급
5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7등급
7등급 수준이나 ④, ⑤가 미흡한 경우.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고 내용만 그대로 발췌하여 그럴듯하게 이어붙이기 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2-1.

<가>의 라디오는 독일의 각 가정에 저렴하게 보급되었다.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고, 결국 대중을 하나로 묶어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장부도 라디오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장부는 2019년에 새롭게 등장하여 음식점업체에 무료로 제공되었고, 앱이 지닌 편의성 때문에 많은 업체가 이에 종속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정보들을 통해 장부는 시장 지배력을 높인다. 이처럼 라디오와 장부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둘 수 있도록 대량으로 보급된 수단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2-2.

<다>는 법과 제도로 엮인 사회를 잘 묶인 궤짝에 비유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궤짝을 열고자 하는 도적에게는 잘 묶인 궤짝이 보안에 효과적이지만, 궤짝 자체를 훔치는 큰 도적에게는 오히려 튼튼하게 묶여 있는 궤짝이 한꺼번에 훔치기 용이하다고 설명한다. 잘 묶여 있을수록 통째로 도둑맞기 쉽다는 것은 잘 조직된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되, 저울, 도장 등이 우리 사회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일시에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와 <나>의 사회는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이다. <가>에서는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일시에 전달하기 위해 라디오를 싸게 보급했고, <나>에서는 배달음식업체들이 앱에 의존할 수 있도록 장부를 무료로 제공했다. 라디오의 보급률이나 장부의 시장 지배력으로 볼 때 이들의 조직화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는 <다>가 경계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 만약 나쁜 의도를 지닌 누군가가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체를 조종하고자 한다면 구성원들은 <가>에서의 사례와 같이 조종자의 의도대로 쉽게 통제될 것이며, 이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와 <나>의 사회는 위험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